# 이재명, TK·강원 제외 전국 7개 지역서 김문수에 우세

서울, 李 43.5%·숲 41.2%···강원, 李 40.5%·숲 43.2% 경합

24~25일 전국 유권자 3028명 무작위 조사

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대 구·경북과 강원을 제외한 7개 지역에서 김문수 국 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.

지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했던 대전 ·충청, 부산·울산·경남에서도 이 후보의 지지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결과 이번 대선에 서 지역별 대통령 선거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총 9개 지역 중 대구・경북과 강원을 제외하고 나머 지 지역에서 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.

이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는 지역 7개 지역 중 서울과 부산・울산・경남을 제외한 광주·전남, 전북, 인천·경기, 대전·세종·충청, 제주에 서는 오차 범위(±1.8%) 밖으로 이 후보가 앞섰다. 김 후보는 대구·경북에서는 오치범위 밖 이 후보에

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이 후보(43.5%)와 김 후보(41.2%) 간 2.3%p 차이로 접전을 벌였다.

앞섰으나, 강원에서는 오차 범위 안에서 우세했다.

광주·전남과 전북에서는 이 후보가 각각 64.4%, 54.6%로 각각 23.1%, 30.8%의 지지를 받은 김 후보를 압도했다.

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 대표신문 9개사

로 구성된 '한국지방신문협회'는 제21대 대통령선

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에이스리서

치에 의뢰해 대선 관련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.

한국지방신문협회는광주일보와강원일보·경남

신문·경인일보·대전일보·매일신문·부산일보·전북

일보·제주일보 등 전국 9개 시·도를 대표하는 신문

이번 조사는 지난 24~25일 까지 이틀간 전국 만

18세 이상 성인 남녀 302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

인천·경기에서는 이 후보(50.1%)가 김 후보 (37.7%)보다 지지를 높은 지지를 받았고, 대전・ 세종·충청에서는 이 후보가 47.4%로, 김 후보 (40.2%)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. 제주에서도 이 후보는 54.9%로 김 후보(33.3%)를 제쳤다. 부산·울산·경남에서는 이 후보가 43.8%, 김 후보 가 43.4%를 기록, 0.5%p차 접전을 벌였다.

보수의 심장인 대구·경북에서는 보수 집결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. 김 후보가 58.6%로 29.5%를 받은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질렀 지만, 이 후보가 목표치인 30%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. 강원에서는 이 후보가 40.5%, 김 후보 가 43.2%로 오차범위 안의 경합이었다.

이 후보 지지 층은 광주·전남(64.4%), 여성 (48.8%), 40대(63.5%) 허리계층,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96.3%), 진보층(84.9%)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고, 김 후보 지지는 대구·경북 (58.6%), 여성(42.1%), 70대 이상(57.6%) 고 연령층, 국민의힘 지지층(93.4%), 보수층 (71.8%)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.

/특별취재단=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다. 표본 선정방법은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 추

출했으며 ARS 조사로 진행됐다. 전국적인 표본

오차는 95%신뢰수준에 ±1.8%p다. 응답률은

9.0%로 총 통화 8만9989명 중 3028명이 응답을

완료했다. 가중갑 산출 및 적용방법은 2025년 4월

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 연령 지

여론조사에서 일부 항목에서 백분율 합계가

99.9% 또는 100.1%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한

다. 이는 백분율 집계 시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

나타나는 라운딩 에러(반올림 오차)로 허용 가능

/특별취재단=정병호 기자 jusbh@

한 수치다.

역별 가중값을 부여했고, 셀 가중치를 적용했다.



"사전투표함 이렇게 관리해요"

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중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대선 사전투표관리관 교 육에서 중랑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함 봉함 등 절차를 시연하고 있다.

### 현재 지지후보 안바꾼다 87.5% '충성도 압도적'

40·50·60대, 평균 90%··· "보수 단일화 효과 없을 것" 지배적

21대 대선에서는 현재 생각하고 있는 지지 후보 에 대한 변동성이 적을 것으로 조사됐다.

이번 조기대선에서는 후보자 지지 충성도가 압 도적으로 높았고, 지지층의 결집현상이 두드러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막판 변수로 꼽히는 보수 후보 단일화도 큰 영향 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.

한국지방신문협회 여론조사 응답자의 87.5%가 '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'이라고 응 답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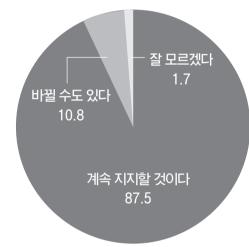
지지 후보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0.8%에 그쳤다. '잘모르겠다'는 1.7%로 집계됐다. 지지 후보에 대한 충성도는 고령층대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 30대 이하에서는 계속 지지 의사를 보인 응답자가 78.1%였고 18.1%가 지지 철회 가능성을 보였다.

30대는 '계속 지지 83.9% 지지변동 가능 13.2%'→ 40대 '계속지지 89.1%, 지지변동 가능 9.9%'→ 50대 '계속지지 90.7%, 지지변동가능 8.3%) →60대 '계속지지 92.4%, 지지변동 가능 7.3%'로 연령이 높아질 수록 지지 후보 변동 가능 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다만, 70대 이상은 89.2%가 계속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반면, 9.2%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 다는 입장을 보였다. 지역별로는 계속 지지 응답 이 제주(90.7%)와 전북(90.0%)이 높은 반면, 지 지후보 변동 가능 응답이 높은 지역은 서울 (12.9%)과 대구·경북(12.6%)으로 확인됐다.

광주·전남은 계속 지지 88.9%, 지지변동 가능 이 10.4%로 전국 평균보다 후보 지지 충성도가 더

◇ 선거 후보 지지도별 분석 〈단위:%〉



높은 것으로 집계됐다.

/특별취재단=정병호 기자 jusbh@

### 금타 불 꺼진 뒤 중금속 측정

#### ▶1면에서 계속

사로 구성됐다.

어떻게 조사했나

이어 "기준치 이하니까 괜찮다라는 말을 사용하 면 안 될 것 같다. 대기 환경 기준 이하라고 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다는 것은 아니며 노약 자나 폐가 안 좋은 사람 등은 얼마든지 영향이 있 을 수가 있다"고 덧붙였다.

앞서, 광주시는 대기오염도 여부를 측정·비교하 는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대기오염 평가 지표 등으로 사용을 금지한 TWA (Time Weighted Average·시간가중평균노출 기준)를 기준으로 적용했다.

이 때문에 광주시가 제 멋대로 고용노동부가 사 용을 금지한 기준을 '보수적'으로 참고하겠다며 선택하고 활용한 것도 문제지만 엉터리 기준을 잣 대로 '미미한 수준'이라는 공식적 판단까지 내놓 으면서 시민들에게 '외출해도 문제없다'는 시그널 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.

광주시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의 허술한 대응을 인정하고도, 정작 사과 표명에는 인식한데 다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면서 기준치 이상 치솟 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실을 누락한 데 대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.

광주시는 '매뉴얼에 없어서', '측정 장비 운영 기간이 아니라서' 늦어졌다고 변명했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화재 이후 진행하는 업무들이 매뉴얼화 돼 있거나 또 절차를 세워서 진행하는 것 이 아니다"며 "전혀 예정에 없던 업무들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, 업무 역량과 우선 집중해야 될 업무 등에 대해 선별할 수밖에 없었다 는 점을 이해하달라"고 말했다.

### 보수층 적극 응답…진보보다 14%p 과표집

이번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 과에서 보수층의 집결세가 감지됐다. 응답률이 9%인 이번 조사에서 정치이념 성향이 '진보'보다 는 '중도'와 '보수'층의 응답이 높았기 때문이다. 이번 조사결과 정치이념 성향이 '보수'라고 답한 응답자가 36.1%로 가장 많았고 '중도'응답자 (35.1%)가 뒤를 이었다. '진보'라고 답한 응답자 p 이상 과표집된 것으로 나타났다.

반 이재명 보수층이 더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한 결과인 셈이다.

지역 정치권에서는 "여론조사가 실제 여론을 반 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유념하면서 살펴봐야 한다"며 "최근 여론조사는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 한 분이 많다"고 분석했다.

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 보의 '일강 체제'는 여전히 유지 되고 있다는 것으 로 평가된다. 진보 성향 응답자가 보수 성향 응답 자에 비해 턱없이 적었던 조사에서도 오차범위 밖 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.

다만, '어대명' (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) 프레 임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.

'어대명' 프레임으로 인해 민주당 지지세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을 뿐 아니 라 투표일 당일에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발길이 투 표소로 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.

/특별취재단=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#### 분묘개장공고(2차)

, 공고 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]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.

1. 분묘위치 및 기수 - 전라남도 영안군 릭진면 용산리 53-1 전7465㎡ / 1기 - 전라남도 영안군 릭진면 용산리 87-25 임5410㎡ / 7기 2. 개장사유 : 종중이장

/#800 /#) 유연분묘 =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징 (에 무인본보다 - 공고기간 중 보고가 될 단시 됩니다) 리 라기를 에 무인본보다 -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4. 인치장소 : 찬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 1140~41 (대양동 목포추모공원) 5. 인치기간 :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

3. 런사/단... '개강 부인서 발로누터 1개월간 6. 콩고기간: 최孝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.신 고 차: 건전귀 (010~4720~0402) 8. 신고시 구비서류 : 신고자(연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획 인하고 신고서에는 배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(즉보 제적동본, 가첩, 사실확인서 등)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

9. 기타사항 :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5 2025년 5월 27일

#### 분할합병공고

주식회사 제이엠엔지니어링(이하 "갑"이라 함)과 주식회사 티케이전력(이하 "을"이라 함)은 2025년 05월 23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'갑"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"을"에게 합병하고 "갑"과 "을"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,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.

2025년 5월 27일 "갑" **주식회사 제이엠엔지니어링**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신로 45, 비동 1205호(연제동, 첨단리채비즈타워)

"을" 주식회사 티케이전**력** 

대표이사 심유송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4, 516호 (중동, 아크로뷰 오피스텔)

### 자본감소공고

본 회사는 2025년 5월 26일 임시주주총 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 700,000,000원을 금 659,000,000원으로 감소하고, 발행주 식의 총수 70,000주 중 보통주식 4,100주 를 본 회사가 희망하는 주주들로부터 1주 당 196,746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.

2025.05.27.

주식회사 에스엠유화 전라남도 영광군 군서면 군서로 364-16 대표이사 김상열

#### 상속한정승인공고

• 피상속인 : 망 강창수(471120-1XXXXXX) • 최후주소 : 광주 북구 우치로331번길 13, 101동 1303호(오치동, 로얄타운)

피상속인 망 강창수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 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 정법원 2025느단431호로 신청하여 2025년 5 월 20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 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 기가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.

2025년 5월 27일 • 상속인 : 곽금선(571101-2XXXXXX)

광주 북구 우치로331번길 13, 101동 1303호(오치동, 로얄타운) • 신고기간 : 2025. 5. 27. ~ 2025. 8. 6. • 채권신고처 : 상속인 곽금선의 주소

##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

② 光则日報

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ᆒᅷ

광고문의 227-9600 신문구독 220-0551 예향구독 220-0550

1. 입찰건명:발생토석 매각 호남고속철도2단계 2공구에서 발생된 토석 48,249㎡상당. 다 혀장 사정에 따라 저체 스라이 변겨(조 가 된 스 이오

구 분 단위 토사 풍화암 연·경암 2. 현장설명회,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(장소 : 호남고속철도2단계 2공구 현장사무실)

가. 현 장 설 명 회 : 2025년 06월 02일 14시 나. 입찰등록마감일: 2025년 06월 05일 14시 라. 낙 찰 자 선 정 : 2025년 06월 10일 (각 입찰자의 경제성 평가 산정을 위해 개찰 5일 후 낙찰자 발표)

가. 낙찰자 결정 : 공개경쟁입찰, 단가입찰(1㎡당), 최고가 낙찰제 입찰자가 제시한 1㎡당 원석대(운반비 포함)가 최고인 업체를 낙찰(예정자)자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최고가격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상차지를 기준으로 운반거리가 가장 가까운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

나. 입찰 참가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계약일로부터 ~ 2025년 12월 31일

5. 입찰 참가 자격

1) 현장설명회일 현재 골재채취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골재채취업(산림골재채취업 또는 골재 선별·파쇄업)으로 등록한자(지자체 골재 선별·파쇄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자)로서 동법 시햇력 제1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(가동이 가능한 크라샤 장비 보유), 현장설명회일 현재 개발행위 준공허가를 득한 야적장을 확보하여 상시 반입(24시간)이 가능하여야 한다. 사업자 및 업면허자가 동일해야하고, 야적장은 동일인(동일법인 또는 동일계열사) 명의의

야적장일 경우와 임대 야적장은 2025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임대계약 체결이 완료되어야한다 3) 현장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적격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, 현장설명시 사업장 관련 4)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, 현장설명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

5) 입찰참가시 제출한 사업장(야적장 또는 골재생산시설)은 발생암 반입,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. 6) 사업장 관련 인허가 서류를 현장설명시 제출하여야 한다.(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 위치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발생암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며, 일 최소 700㎡이상, 월 25,000㎡이상 발생암 반입이 가능한자

※ 2025년 6월30일까지 약 7,000㎡ 반출 완료 가능한자 1) 현장설명일 기준으로 세금이 체납된 사실이 없어야 하며, 현장설명 시 국세 및 지방세 가 근 이 글이 그 가는 그 세계의 세계의 사람이 하다. 근 이글이 가 다시 못 가야게 완남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2) 입찰참가 시 제출한 사업장(야적장 및 골재 생산시설)은 발파암 반입, 골재생산 등을 진행함에

있어 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함 6. 입찰업체 제출서류(입찰관련 서류는 현장설명회 참석시 제출) 가. 골재생산시설 또는 사토장 위치가 명확히 표시된 위치도 나. 골재 선별 파쇄업 사업자 등록증

다.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(인감도장 지참) 라, 시국세 완납증명서 마. 위임장(대리인 참석시) 및 재직증명서

매 각 자 :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

가. 입찰자는 현장설명서, 계약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기 납계시는 단증증에게 기계수보다는 납문에 물리된 모든 사용을 된단 참가하여야 하며, 입찰등록을 마친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. 나. 기타 상세한 사항 문의체(현장접수만 가능)

> 감리단 ㈜서 현 061-453-4537 2025년 5월 27일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

## ※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!

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.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.
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전세보증금,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, 상속채권 전문 회수 • 분양대금 연체 등, 채무자(신용)재산조사만 의뢰 가능
- 법인공사대금,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·차용증 거래장부·계약서·입금 내역·녹취 등 각종채권상담

직통전화 062)521-4109 010-2785-0073